



신지애가 지난 2005년 프로 데뷔 후 함평다아너스티CC에서 본사 초청 라운드 중 마제스티 1번홀(파5·426m)에서 힘차게 티샷을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신지애 LPGA ADT 챔피언십 우승

▲ 신지애가 24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팜 비치의 트럼프 인터내셔널 골프 클럽에서 벌어진 ADT 챔피언십 최종 라운드 16번째 홀에서 벙커 샷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데 렐라의 진화... ‘신’ 여제 탄생 예고

■ LPGA 우승 일지



브리티시 오픈 (8월 4일)



미즈노클래식 (11월 9일)



ADT 챔피언십 (11월 24일)

강한 정신력·배짱 세계 정상급 내년 LPGA ‘태풍의 핵’으로

■ 우승하기까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는 새로운 여제의 탄생을 준비하라’ 한국여자프로골프의 ‘지존’ 신지애(20·하이마트)가 본격적으로 LPGA 투어에 뛰어들기도 전에 미국 본토에 자신의 존재를 확실하게 각인시켰다. 신지애는 24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웨스트팜비치 트럼프인터내셔널골프장(파72·6천523야드)에서 열린 LPGA 투어 시즌 마지막대회 ADT챔피언십 최종 라운드에서 2언더파 70타를 쳐 다른 7명의 강호들과 대결에서 완승을 거두며 정상에 우뚝 섰다.

베테랑 카리 웹(호주)이 1언더파 71타를 치며 마지막까지 추격전을 펼쳤지만 신지애를 따라잡을 수 없었고 위장병 때문에 병원 신세까지 졌던 미국의 희망 플라 크리머도 2오버파 74타로 이선화(22·CJ)와 함께 공동 3위에 그쳤다. 아직까지는 LPGA 투어 비회원 자격으로 이번 대회에 출전한 신지애는 올 시즌 메이저대회 브리티시여자오픈, 일본에서 열린 미즈노클래식에 이어 시즌 마지막 대회까지 모두 3승을 거두는 놀라운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비회원으로 출전한 선수가 한 시즌에 3승을 거두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대회 우승으로 거금 100만달러를 받은 신지애는 미국 본토에서 처음으로 정상에 오르는 기쁨까지 누리며 내년 시즌 화려한 데뷔를 예고했다. 위기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강인한 정신력과 기회를 잡으면 놓치지 않는 두둑한 배짱. 이 모든 것을 두루 갖춘 신지애가 내년 LPGA 투어에서 돌풍을 일으키리라는 것을 확실히 입증한 대회였다.

32명 중 8명만이 4라운드에 진출, 이전 라운드 성적과 관계없이 새로 시작한 최종 일 경기에서 신지애는 웹과 같은 조에 편성됐다. 전반에 버디 2개를 잡았지만 7번 홀(파3)에서 티샷을 몰에 빠뜨리는 바람에 보기를 했던 신지애는 9번홀을 끝냈을 때 웹에게 1타를 뒤져 있었다. 11번홀(파3)에서 웹이 3퍼트 심수로 1타를 잃어 공동 선두로 올라선 신지애는 12번홀(파5)에서 우승 기회를 잡았다.

웹이 이 홀에서 보기를 하는 사이 신지애는 세번째 샷만에 볼을 그린 위에 올린 뒤 5m 버디를 성공시켜 2타차 단독 선두

Table with 2 columns: 대회, 상금. Lists various tournaments and their prize money, including the ADT Championship.

로 올라섰다. 하지만 쉬운 우승이란 없는 법. 신지애는 이 코스에서 가장 어렵다고 꼽았던 15번홀(파5)에서 큰 위기를 맞았다. 온그린을 노리고 친 두번째 샷이 그린 왼쪽 벙커에 빠졌고 세번째 샷을 심수해 벙커 탈출에 실패, 1타를 잃고 말았다.

웹은 이 홀에서 버디를 잡았고 앞서 출발한 이선화가 16번홀(파4)에서 1타를 즐기면서 신지애는 쫓기는 신세가 됐다. 하지만 신지애의 컴퓨터 아이언샷은 위기에서 더욱 빛을 발했다. 신지애는 16번홀에서 두번째 샷을 홀 1m 이내에 붙여 버디를 잡으면서 분위기를 반전시키고 우승을 향해 한걸음 더 나갔다.

웹이 2타 앞선 단독 선두로 18번홀(파4) 그린에 올라선 신지애는 웹이 그린 가장자리에서 친 먼거리퍼트도 버디를 잡아 1타차로 따라붙었지만 오히려 박수를 쳐주는 여유도 보였다.

신지애는 2퍼트로 여유있게 경기를 마무리, 우승 상금 100만달러를 현금으로 받으며 내년 시즌 LPGA 투어의 새로운 강자의 탄생을 알렸다.

이선화도 마지막까지 선전을 펼쳤지만 17번홀에서 친 티샷이 그린 뒤 바위 속으로 날아가 분실구 처리가 되면서 더블보기로 돌아와, 어렵게 우승경쟁에서 탈락했다.

한국 선수들은 최종라운드에 4명이 진출, 신지애가 우승하고 이선화가 공동 3위에 오른데 이어 지은희(22·힐라코리아)가 5위(3오버파 75타), 장정(28·기업은행)이 공동 7위(7오버파 79타)의 성적을 냈다. /연합뉴스

“내년 신인왕 목표”

■ 인터뷰

LPGA 투어 2008시즌 마지막 대회로 열린 ADT 챔피언십에서 정상에 올라 상금 100만달러를 차지한 신지애(20·하이마트)는 공식 인터뷰에서 능숙한 영어로 “2009년 LPGA 투어 신인왕이 목표”라며 여유를 잃지 않았다.

- 한국에서 시즌 그랜드슬램을 포함해 7승, 일본에서 한 번, LPGA에서 세 번 우승을 차지했다. 이번 시즌에 대해 말해 달라.

▲ 35개 대회에 출전하느라 매우 빨리 지나간 한 해였다. 올해는 미국과 일본에서도 정상에 올라 특별했다. 작년에는 TV로만 보던 LPGA 투어에서 우승을 차지한 것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기쁘다.

- 웹이 말하기를 당신이 박세리 이후 가장 뛰어난 실력을 갖추고 있는 한국 선수라고 한다. 그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어떤가.

▲나는 내년엔 LPGA 투어에 데뷔하는 선수도 박세리는 내가 가장 존경하는 선수다. 아직 LPGA 멤버도 아닌 나로서는 내년이 매우 중요하다. 성적을 꾸준히 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100만달러 상금을 의식했다.

▲아니다. 우승하는 것이 1차 목표였고 상금은 그다음이었다. 우승하면 상금은 따라오는 것 아닌가. 어쨌거나 100만달러를 받게 돼 기쁘다.

- 100만달러로 무엇을 할 것인가.

▲다들 그 질문을 많이 하는데 아버지와 상의해야 할 것 같다. 먼저 지금 한국은 매우 출기 때문에 일부 자선기금으로 내고 또 미국에 살 집을 찾아봐야겠다. 많은 한국 선수들은 플로리다주 올랜도에 사는데 나도 올랜도 아니면 캘리포니아를 생각하고 있다.

- 골프와 관련된 꿈을 자주 꾸나.

▲가끔 꾸나. 사실 내 꿈은 세계 1위가 되는 것이다. 당장 내년에는 세계 1위보다 신인왕을 목표로 차근차근 이뤘 나가지겠다.

- 웹은 당신이 페어웨이를 놓치지 않고 퍼트 실수가 없으며 특별한 약점이 없다고 한다. 당신의 강점은 무엇인가.

▲페어웨이와 그린을 놓치지 않고 퍼트를 성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간단한 템포를 지키는 것뿐이다. 오늘은 샷 감각이 좋았는데 전반까지는 웹과 차이가 거의 나지 않아 약간 긴장했다. 그러나 웹이 11번홀부터 3연속 보기를 해 편안해졌는데 사실 나는 긴장을 즐기는 편이다.

- 영어 공부를 따로 하는가. 영어 실력이 더 좋아졌다.

▲그렇지는 않다. 8~9개월 정도 호주 캐디와 함께 다니면서 영어에 익숙해졌다. 한국이 아닌 곳에서 열리는 대회에 출전하면서 영어에 더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연합뉴스

■ 프로 필



- ▲ 1988년 4월 28일 생
▲ 신장 1m 56cm
▲ 가족 : 아버지(신재섭 씨)와 동생 2명
▲ 영광 흥농초등-흥농중-함평골프고-연세대(체육교육학과) 재학
▲ 골프 입문 : 초등 5학년 때 영광원전 구내 골프연습장
▲ 프로 데뷔 : 2005년 11월 SK엔크린인 비테이셔널대회 아마추어로 출전, 우승 후 프로 전향
▲ 존경하는 골퍼 : 즐리 잉스터, 로레나 오초아

LPGA 시즌 상금 177만달러...랭킹 3위

‘상금 액수만으로는 랭킹 3위’ 한국여자프로골프의 지존 신지애(20·하이마트)가 세계골프계의 이목을 받으며 강호로서 입지를 확실히 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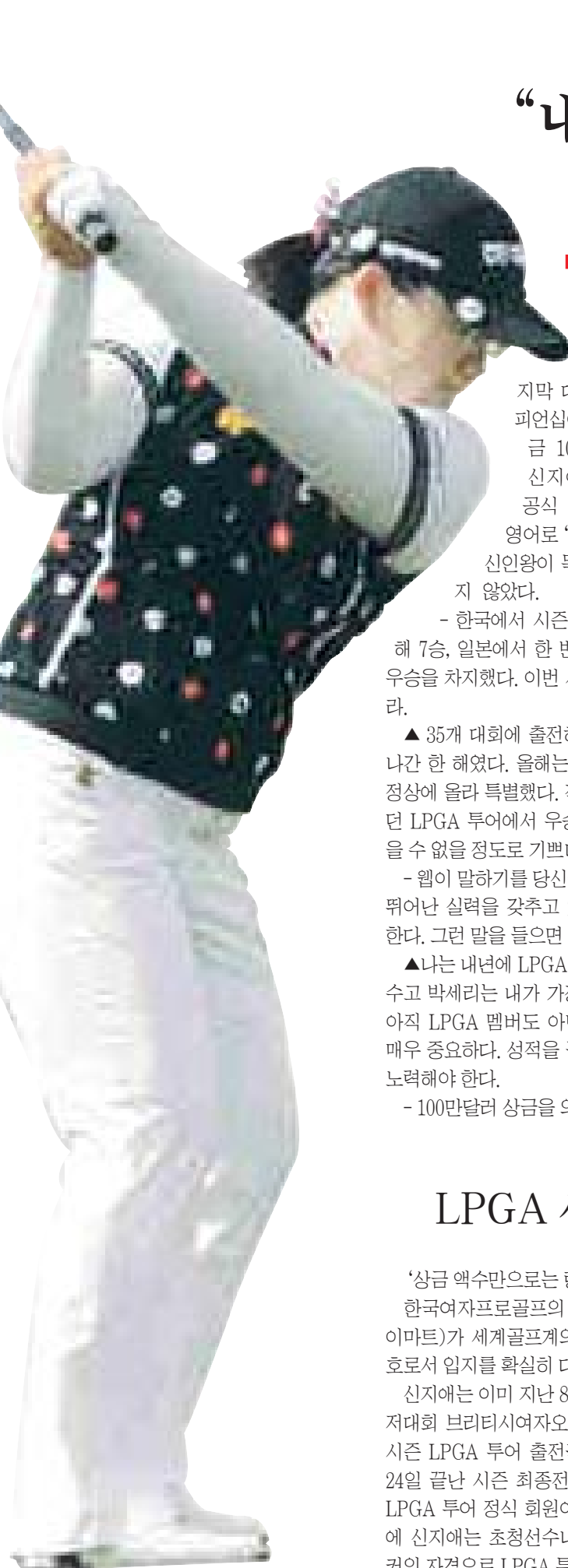
신지애는 이미 지난 8월 LPGA 투어 메이저대회 브리티시여자오픈에서 우승해 내년 시즌 LPGA 투어 출전권을 손에 넣었지만 24일 끝난 시즌 최종전 ADT챔피언십까지 LPGA 투어 정식 회원이 아니었다. 이 때문에 신지애는 초청선수나 세계랭킹 상위 랭커의 자격으로 LPGA 투어에 제한적으로 출전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올 시즌 거둔 성적은 놀라울 따름이다.

신지애는 올 시즌 LPGA 투어 정규대회에 10차례 출전, 세차례 우승을 포함해 모두 여섯차례나 톱10에 들어 상금 액수가 약 177만

달러. 신지애는 LPGA 투어 정식 회원이 아니라 공식 상금랭킹에 이름을 올리지 못하지만 상금액수라면 따지면 로레나 오초아(276만 3천달러), 플라 크리머(182만3천달러)에 이어 3위에 해당한다. 공식 랭킹 3위 청아니(대만)가 올해 27개 대회에 출전해 175만2천달러를 벌어들인 것과 비교해도 놀랄만한 성적이다.

국내 뿐 아니라 미국, 일본에서 벌어들인 상금이 올해 40여억원이 넘는다.

LPGA 투어는 ADT챔피언십 우승 뒤 홈페이지에 신지애의 올 시즌 성적을 자세히 열거하며 한국 뿐 아니라 미국, 일본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우승한 선수라고 소개했다. /연합뉴스



신지애가 ADT 챔피언십 최종 라운드 9번 홀에서 세컨샷을 날리고 있다. /연합뉴스